

‘광주의 아들’ 지유찬 자유형 50m ‘금빛 물살’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계영 800m 자유형 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수영 새로운 황금세대 전인 남자계영 800m 단체전도 첫 우승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 성과 내년 파리올림픽 메달 기대

이제까지 한국 선수의 경연 최단 거리 종목인 자유형 50m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김민석(44) 제일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만 경험했다. 김 전무이사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이 종목에서 라빌 나차에프(우즈베키스탄)와 22초86의 기록으로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어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로부터 21년 동안 맥이 끊겼던 ‘수영 스프린터’의 금맥을 지유찬(21·대구광역시청)이 재발견했다. 광주체육·고를 나온 지유찬은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72로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예선에서 21초84로 골인한 한국 선수 중 최초로 21초대에 진입한 지유찬은 결승에서 자신의 기록을 한 차례 더 나아냈다. 한국 수영이 발전하면서 중장거리에서 박태환, 단거리에서 황선우(강원도청)가 차례로 등장했다. 하지만 육상으로 치면 100m 달리기와 같은 자



광주 출신 지유찬이 25일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금메달 획득한 후 메달을 물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형 50m에서는 김민석의 후계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 전무이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22초의 벽을 많은 제자가 도전했다가 좌절했다. 그래서 ‘한국 스프린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지유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21초 중반대에 진입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곧바로 벽을 깬 걸 보면 지유찬 선수는 앞으로 기록을 줄여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국 수영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박태환 혼자 젊어지고 나갔다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선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 남자 계영 800m에서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이상 강원도청),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이 아시아 신기록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지유찬까지 항저우에서 애국가 울리게 했다. 김 전무이사는 “수영은 원래 스프린터 기록이 좋아야 중장거리 기록도 좋아진다. 21초대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진입했다는 것만 봐도 한국 수영이 발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기록을 줄이면, 내년 파리올림픽 결승 진출과 메달까지 노릴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50m 금메달리스트 케일럽 드레슬(미국)은 21초07로 압도적인 역량을 펼쳤으나 2위 플로랑 마노두(프랑스·21초55)와 3위 브루누 프라투스(브라질·21초57)는 21초 중반대였다. 김 전무이사도 “지유찬 선수가 조금만 더 기록을 단축해 21초5대에 진입하면 올림픽에서도 해볼 만하다. 한국에도 스프린터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한국 사격 리닝타깃 2개 종목 싹쓸이 ‘2관왕’

개인전서도 동메달 2개 획득

한국 사격 대표팀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10m 리닝타깃 단체전 2개 종목을 싹쓸이하고 2관왕에 올랐다. 정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박용빈(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6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 10m 리닝타깃 혼합 단체전에서 1116점을 기록, 5개 참가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은메달은 카자흐스탄(1111점), 동메달은 인도네시아(1098점)가 가져갔다. 대표팀은 전날 남자 10m 리닝타깃 정상 단체전에선 한국 사격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금빛 총성을 다시 울리며 한국 사격의 이번 대회 목표(금메달 2개)를 채워냈다. 여자 50m 소총 3자세(27일), 남자 50m 소총 3자세, 여자 10m 공기권총(이상 29일)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 사격의 목표 초과 달성도 기대된다. 이날 리닝타깃 일인자 정유진이 377점을 맞췄고 하광철과 박용빈이 각각 373점, 366점을 올렸다. 개인 성적에서 북한의 권광일과 공동 2위에 오른 정유진은 ‘남북 대결’ 숲오프에서 고배를 마시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숲오프는 각 2발씩 쏘 합산 기록이 높은 쪽이기는 방식이다. 권광일은 18점, 정유진은 17점을 썼다. 전날 정상 개인전에서도 숲오프 끝에 동메달을 얻은 정유진은 이로써 5회 대회 연속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2006년 도하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남자 10m 리닝타깃 부문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



2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10m 리닝타깃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유진(왼쪽부터), 하광철, 박용빈이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 5개를 수직했다. 북한은 정상 단체전에서 막판 실수로 금메달을 놓쳤던 아픔을 설욕하려 했으나 단체전 4위(1097점)로 경기를 마감했다. 전날 북한은 마지막 유성준이 마지막 58~60번째 사격에서 9점, 7점, 8점으로 미끄러지며 한국에 동점을 헌납했고 이너텐(Inner Ten·10점 정중양) 횡수에서 밀려 은메달로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다만 권광일이 이날 혼합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며 체면을 차렸다. 북한은 이번 대회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기록 중이다. 리닝타깃은 사냥감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는 종목이다. 표적 속도가 일정한 정상 종목과 무작위로 속도가 달라지는 혼합으로 나뉜다. 이날 오전 열린 10m 공기소총 혼성 경기에선 박하준과 이은서가 접전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유도 김지정 ‘값진 동’

순천시청 유도팀 김지정(26)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정은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사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유도 여자부 6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디나 코치르바예바를 한판승으로 제압하고 3위에 올랐다. 김지정은 가볍게 승리했다. 초반 지도(반칙) 1개씩을 주고받은 뒤 경기 시작 2분 21초 만에 빗당겨치기로 상대를 쓰러뜨려 절반을 얻었다. 이어 걸누르기 기술을 펼치며 추가 절반을 얻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승부가 마무리되기까지는 2분 32초가 걸렸다. 김지정은 2017년과 2022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아시아권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인 선수다. 2018 국제유도연맹(IJF) 바쿠 세계선수권대회에선 혼성단체전 일원으로 참가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번 대회 목표를 우승으로 잡은 뒤 훈련에 전념했으나 금메달을 획득하진 못했다. 김지정은 16강에서 아펠리나 차에브(레바논)를 연장(골드스코어) 접전 끝에 반칙승으로 눌렀고, 8강에선 카자흐스탄의 에스미굴 쿠울로바를 안다리 되치기 절반으로 꺾었다. 순조롭게 경기를 이어가던 김지정은 준결승에서 만난 일본의 다카지치 미쿠에게 일격을 당했다. 안다리 후리기 절반-걸누르기 절반을 얻거푸 내주며 한판패 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아쉬움을 삼킨 김지정은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생애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25일 유도 여자 63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지정이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정은 경기 전날 나왔던 아버지와 통화가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정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어제 너무 떨려서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드렸다”라며 “평소 엄하신 분인데, ‘이기든 지든 널 믿고 응원하겠다’고 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됐고, 오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김지정은 “아버지는 내게 큰 존재”라며 “유도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도와주셨다”고 소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이화숙 ‘6관왕’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김옥금도 ‘4관왕’



광주시청 양궁팀이 대회 뒤 코치진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옥금, 김옥용, 김란숙, 이화숙, 정진영(이상 광주시청). 뒷줄 왼쪽부터 인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 이경렬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 윤태성(광주시장애인체육회), 권인하(광주시청) 선수.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제공>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이화숙이 제2회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4차 선발전에서 금메달 6개를 수확하며 6관왕을 차지했다. 최근 광주시청에 입단한 이화숙(RWO)은 지난 20~23일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70m, 60m, 50m, 30m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개인종합과 더블에서 2개의 금메달을 더한 이화숙은 대회 6관왕에 오르며 2024 파리 패럴림픽 태극마크 청신호를 켜다. 이화숙은 60m와 30m에서는 한국신기록도 경신했다. ‘노장 투혼’ 김옥금(WW1)도 70m, 60m, 50m, 3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옥금은 60m에서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정진영(CWO)도 70m 2위, 30m 3위를 기록, 개인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김란숙(RWO)도 더블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보냈다. 오는 10월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패럴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김옥금과 정진영은 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실전대회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선전을 펼치며 6관왕을 향한 자신감을 키웠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